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_ 폐막작
Orfeo ed Euridice C. W. Gluck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_ 폐막작

Orfeo ed Euridice

C. W. Gluck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11. 7 FRI. 19:30 – 8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2025 판타지아대구페스타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

LEE BAE _ Brushstroke-J, 260 x 194cm, 2022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_ 폐막작

Orfeo ed Euridice

C. W. Gluck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11. 7 (금) 19:30 – 8 (토)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주최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후원·협력 대구현지법인
대구신세계

 LOTTE
DEPARTMENT STORE

COFFEE MYUNGGA
SINCE 1990

 KORAIL
대구본부

 TOWER
DAEGU

Orfeo ed Euridice

C. W. Gluck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개요

작곡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룩 1714-1787

대본 라니에리 드 칼차비기

원작 그리스 신화 중 <오르페우스 신화>

배경 태초의 그리스와 지하세계

초연 1762. 10. 5 오스트리아 빈 부르크극장

형식 3막

언어 이탈리아어(국문/영문자막 제공)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조정현

연출 엄숙정

출연진	11. 7.	11. 8.
오르페오 M. Sop.	김정미	김정미
에우리디체 Sop.	오희진	오희진
아모레 Sop.	이정현	이정현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카이로스 댄스컴퍼니

INFORMATION

Composer 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

Librettist Ranieri De’ Calzabigi

Form 3 acts

Language Italian(Korean/English subtitles)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Conductor Cho Jung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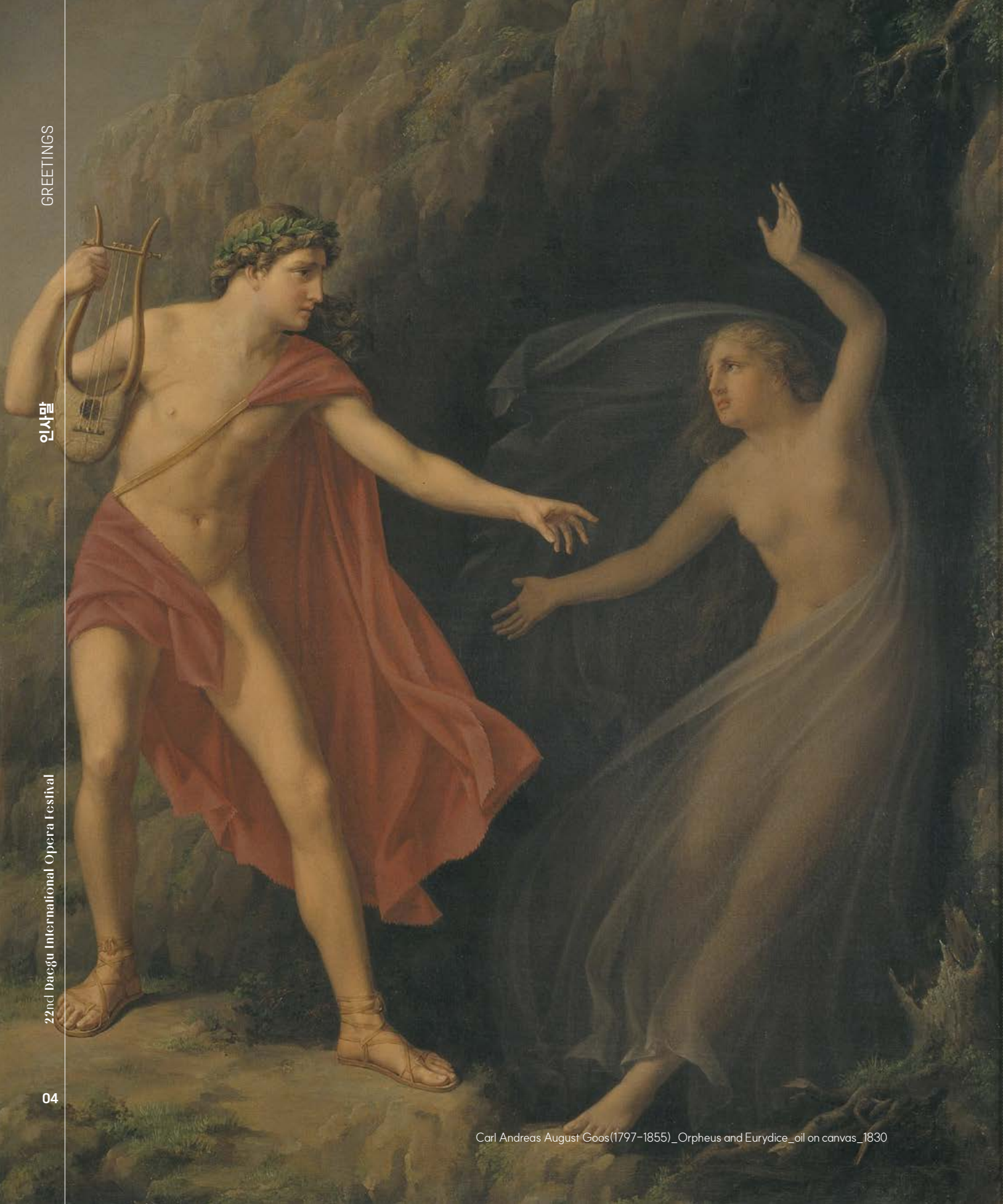
Director Eom Sookjeong

CAST	11. 7.	11. 8.
Orfeo M. Sop.	Kim Jungmi	Kim Jungmi
Euridice Sop.	Oh Heejin	Oh Heejin
Amore Sop.	Lee Junghyun	Lee Junghyun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Daegu Opera Choir
Kairos Dance Company

Contents

인사말	Greetings	04
작곡가 소개	Composer	06
작품 소개	Exposition of Orfeo ed Euridice	08
연출의 글	Director’s Note	12
줄거리	Synopsis	14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16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18
주요제작진	Creative Team	20
출연진	Cast	22
출연단체	Cast	24
제작진	Production Team	26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30



Carl Andreas August Goos(1797-1855)_Orpheus and Eurydice_oil on canvas_1830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마지막 여정, 모두의 오페라, 모두의 축제로!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 갑 군

어느덧 성공적인 축제의 끝을 향하며,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자체 제작 오페라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폐막 공연합니다.

금년 축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확장하며, 대구가 '오페라의 도시'로서 지닌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명작과 수준 높은 무대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폐막작으로 선보이는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이번 축제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 7월,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된 '2025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에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초청받아 메인 오페라로 선보이며 현지 관객들과 관련 인사들에게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오페라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극찬받은 이번 무대가 국내 관객 여러분 앞에서 다시금 빛을 발하게 되어 축제의 품격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랑과 예술이라는 인류 보편의 주제를 다룬 이 작품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깊은 성찰의 순간을 선사하며, 오페라 예술이 지닌 순수한 힘과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이번 공연이 관객 여러분께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번 축제에서 쌓아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준 높은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글로벌 교류를 한층 더 넓히며 예술의 가치를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는 한층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기획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과 예술의 위대한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예술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는 성원으로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 오페라의 중심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룩 1714-1787

Christoph Willibald Gluck

체코 보헤미아 태생의 오스트리아 작곡가. 기교와 장식이 지나치게 많았던 당대 성악과 오페라를 그 본질에 가깝게 복구하는 업적을 남겼다. 글룩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음악교육을 받았으나, 그의 부모는 그가 본격적인 음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18세의 글룩은 프라하로 건너가 대학에서 공부하며 음악활동을 병행한다. 1737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사마르티니 G. B. Samartini, 1700-1775 에게 오페라 양식을 배우고 첫 오페라 <아르타세르세 Artaserse>를 발표한 글룩은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전역에서 8개의 오페라를 발표해 좋은 평판을 얻는다. 글룩은 런던을 거쳐 빈에 정착, 1750년 마리아 테레제 여왕의 궁정악장에 임명된다. 젊은 시절 이탈리아 오페라를 작곡하며 큰 호평을 받았던 글룩은 이 무렵부터 프랑스 코미크 오페라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남기기 시작한다.

한편 글룩은 당대 오페라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오페라들은 목소리의 아름다움과 기교를 중시한 나머지 가수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고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작곡가가 작곡한 음악과 의도대로 무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1762년 빈 Wien 부르크테아터에서 초연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시인이었던 칼차비기 Ranieri de' Calzabigi와 합심하여 제작한 그의 첫 번째 개혁이자 대표작이다. 빈에서 초연할 당시 대본은 이탈리아어였으며, 오르페오는 알토 카스트라토 가수가 맡았으나 메조소프라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 후 글룩은 1764년에 빈을 떠나 파리로 와서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 그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준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 등 2대 대작을 발표하고, 1780년 빈으로 돌아가 평안한 여생을 보내다 사망한다.

글룩은 오페라 <알체스테 Alceste>의 악보 서두에 '오페라에 있어서의 음악은 시와 극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회화에 있어서의 선명한 윤곽에 대해서 색채가 아름다운 명암을 주는 것처럼, 음악이 개개의 인물에 생명을 부여해야 한다. 의미가 없는 기교를 위해서 극의 진행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서곡에는 이제부터 시작될 극의 내용을 암시해야 한다.'라고 쓰며 '대본에 맞춰 작곡되는 오페라'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처럼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오페라가 지니는 특유의 양식들을 융합하여 가수 중심의 오페라에서 대본이 주가 되는 오페라로의 이행을 시도하였고, 이를 이룩한 개혁가였다.



오페라의 근대적 전환을 시도한 작곡가 글록의 이상

오페라평론가/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손 수 연

그리스신화와 오페라

오페라는 르네상스의 끝자락, 바로크의 시작 무렵 태어났다. 수많은 예술 장르가 탄생한 계기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오페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생겨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오페라의 등장은 그리스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양 문명의 상상력과 철학의 토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스신화는 단순히 고대 그리스인들의 전승 설화를 넘어서 서구의 종교와 철학을 연결하는 기능을 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서양 문화와 예술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독교가 지배했던 약 천년의 중세를 지나 맞이한 르네상스는 곧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 문명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성경의 하나님처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이라기보다는, 인간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신들의 사랑과 질투, 분노와 복수 등은 인간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르네상스 시기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 점은 중세 기독교 신학과 대비되는, 인본주의적 전통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오페라는 피렌체 바르디 공작의 ‘카메라타’에서 태어났다. 카메라타(CAMERATA)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방, 혹은 동호인의 모임이라는 의미이자 르네상스 말기였던 16세기 말 피렌체의 예술 후원자인 조반니 데 바르디 공작의 살롱에 모였던 시인, 음악가, 화가, 문인, 건축가 등 예술가들의 소그룹을 통칭했던 말이기도 하다. 카메라타의 중심인물은 바르디 공작이었으며, 음악가, 학자, 시인, 후원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음악가로는 바르디, 에밀리오 카발리에리,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버지 빈첸초 갈릴레이, 피에트로 스트루치, 줄리오 카치니, 야코포 페리 등이 있었고 학자로는 지롤라모 메이, 시인으로는 옥타비오 리누치니, 가브리엘로 키아브레아 등이 있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서정 비극을 재현하고자 했다. 그리스의 서정 비극은 본래 종교적 제의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예술성을 확대해 대중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확보했던 시극(詩劇)으로 알려져 있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같은 그리스 서정 비극의 극작가들은 대사와 노래(합창 또는 독창)를 교차시켜 극적 효과를 끌어 올렸고 특히 코러스(합창대)를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건을 해설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음악적·서정적 장치로 활용했다. 따라서 그리스 비극은 문학, 음악, 무용, 연극이 결합 된 종합예술의 초기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피렌체 ‘카메라타’의 학자와 음악가들은 그리스 비극의 본질이 음악과 서정성에 있다고 보고, 대사를 단순히 낭송하지 않고 음악으로 말하는 형식(즉 오늘날의 레치타티보 recitativo)을 고안했다. 이들은 음악과 시와 연극을 결합한 장르를 만들면서 그리스신화 속 내용을 주제로 삼았다. 그리스 비극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신, 운명과 자유의 대립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극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1598년 피렌체의 카메라타는 야코포 페리 작곡, 옥타비오 리누치니 대본으로 최초의 오페라 <다프네(Dafne)>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1600년 다시 페리가 작곡한 <에우리디체(Euridice)>가 일부 남아있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로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오페라로 부르지 않고 ‘음악을 위한 극’(Dramma per Musica)라 지칭했지만, 차츰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오페라는 이렇게 르네상스 말기, 피렌체의 예술인 그룹에서 그리스의 서정 비극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노래하고자 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리스신화는 인간과 신, 운명, 사랑, 죽음 등 극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 노래와 음악을 통해 감정을 호소하는 오페라의 서사와 잘 맞았다. 오페라는 발생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그리스신화를 소재로 삼았다. 오페라에서 다뤄진 그리스 신화의 다양한 소재들을 살펴보면 오르페우스 신화는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1607)>와 글록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1762)> 이피게니아 신화는 글록의 <타우리스의 이피게네이아(1779)>로 재탄생했다. 아리아드네 신화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1912)>로 만들었다. 트로이 전쟁 신화 오페라로는 헨델의 <데이다미아(1741)>와 베를리오즈가 작곡한 <트로이 사람들(1863)>이 있고 아이네이아스 신화는 퍼셀의 영국 오페라 <디도와 아이네이아스(1689)>로 창작됐으며, 메데이아 신화는 케루비니가 <메데아(1797)>로 선보였다. 이 밖에도 세멜레, 헤라클레스, 아폴론 등 그리스신화의 신과 영웅을 소재로 한 바로크 오페라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 특히 오페라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 신화를 말하라면 오르페오 신화를 꼽을 수 있다.

신화 속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Orpheus) 신화는 그리스신화 중에서도 음악과 사랑, 죽음과 부활을 주제로 하여 후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야기 중 하나다. 그리스신화에서 오르페오는 9명의 뮤즈(시와 음악의 여신) 가운데 한 명인 칼리오페(Calliope)와 트라키아의 왕 오이아그로스(Oeagrus)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그는 리라 연주와 노래의 천재로, 신 아폴론에게 음악을 배웠다고도 한다. 오르페오의 연주는 인간은 물론 동물, 나무, 바위, 심지어 강물까지 움직일 만큼 강력했다고 하며, 산천초목이 모두 감동했다고 한다.

오르페우스는 님프(숲의 요정)인 에우리디체(Euridice)와 뜨거운 사랑에 빠져 결혼했는데 결혼 직후, 에우리디체는 그만 뱀에게 물려 갑작스럽게 죽고 만다. 깊은 슬픔에 빠진 오르페오가 연주를 멈추자, 인간 세상은 물론 신들의 세상까지 적막과 비통에 잠겼다고 한다. 그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저승의 신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 세계로 내려갈 결심을 한다.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연주하며 저승의 수문장 케르베로스를 무사히 통과하고, 이윽고 저승의 신 하데스와 왕비 페르세포네의 마음마저 움직이게 만든다. 페르세포네의 간청에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에게 에우리디체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했지만, 지상에 도달하기 전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다.

오르페오는 에우리디체를 데리고 지상으로 향하지만, 거듭되는 유혹과 에우리디체의 울음에 참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 뒤돌아보고 만다. 동시에 에우리디체는 다시 저승으로 영영 사라진다. 그는 다시 내려갈 수 없었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히 잃는다. 이후 오르페우스는 인간 세상을 방랑하며 슬픈 음악만을 연주하다 생을 마쳤다고 한다. 죽은 뒤 그의 리라는 아폴론이나 제우스에 의해 하늘로 올려져 별자리(리라; 거문고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원래 이야기이다. 그러나 결말은 다양하게 변형됐다. 일부 전승에서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마이나드(광란의 여인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고 기원전 7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르페우스를 창시자로 삼아 인간의 영혼과 윤회, 정화, 금욕적 도덕률을 중시하고 비밀 의식과 영혼 구원을 강조한 오르페우스 종교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류 최초의 음악가 오르페우스의 극적인 신화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은 자연, 신, 죽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힘을 상징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으려는 시도와 실패는 인간적 비극과 보편적 감정을 담고 있다. 특히 고대 그리스어로 카타바시스(katabasis, 저승 여행), 살아 있는 인간이 저승을 다녀온다는 모티프는 이후 수많은 문학, 예술 작품의 원형이 됐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Metamorphoses)’, 베르길리우스의 ‘게오르기카(Georgica)’ 등 라틴어 문학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사용되었고, 미술에서는 르네상스와 낭만주의 화가들이 즐겨 다룬 주제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는 철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삶과 죽음, 예술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상징적 이야기로 해석됐다. 이처럼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성한 힘, 동시에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며, 음악과 오페라에서는 오페라의 출발점이자 반복되는 주제(몬테베르디, 글록, 오펜바흐의 오페라 등등)로서

더욱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페라 속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오르페우스 신화는 서양에서 ‘음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여겨진다. 오르페오의 리라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자연과 초월적 존재까지 움직이는 힘을 지닌 신기(神器)라고 할 수 있다. 신화 속에서 그는 음악으로 동물, 나무, 바위, 강물, 심지어 죽음의 신마저 감동하게 했다. 따라서 그는 인류 최초의 음악가, 시인, 예술가의 원형이 됐다. 오르페오 신화에서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초월적·영적 힘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음악은 자연을 조화롭게 묶는 힘이고, 음악은 죽음의 경계조차 넘어서는 힘이며, 음악은 인간 감정의 극치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나타난다. 피타고라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음악을 ‘우주의 조화’(Harmonia)라고 보았는데, 오르페우스의 힘은 이에 대한 표상과도 같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는 조화의 실현이었다. 플라톤 이후 철학자들도 음악을 교육과 영혼 수양의 도구로 강조했는데, 오르페우스 신화는 이러한 사상적 전통과 연결됐다. 이는 그리스 문명의 전통을 계승하려고 한 르네상스 이후 인문주의자들과 음악가들이 오페라를 만들면서 ‘음악의 본질은 인간의 감정을 극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라고 정의한 것과도 이어진다. 발생 초기, 오페라는 음악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가장 주된 제재로 선택하면서 장르의 정체성을 선언했다. 다시 말해, 오페라에 나타난 음악은 오르페오처럼 인간과 자연, 신을 잇는 힘이지만 동시에 인간적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예술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페라 역사 속 오르페오 신화 작품들을 알아보면, 역사상 두 번째 오페라로 인식되는 야코포 페리의 <에우리디체(1600)>와 오페라를 본격적으로 확립한 기념비적 작품인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작곡의 <오르페오(1607)>, 크리스토프 W.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1762)>, 오르페우스 신화를 풍자적으로 패러디한 자크 오펜바흐 작곡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Orpheus in the Underworld, 1858)> 등이 있다. <지옥의 오르페우스>에는 캉캉 춤으로 유명한 ‘프렌치 캉캉’이 나온다. 이렇게 오르페우스 신화는 오페라의 시작과 개혁, 풍자에 이르기까지, 오페라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다시 소환됐다.

오페라와 오르페우스 신화는 서로의 존재를 정립해 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오르페우스가 음악으로 저승을 움직이듯, 오페라 예술도 음악의 절대적 힘을 강조하고 있고 사랑과 상실, 비극적 운명이라는 강렬한 감정의 극대화가 오페라적 서사에 적합했다. 또한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곧 오페라의 원형에 대해 성찰하는 메타적 작업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르페우스 신화는 오페라 역사 전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오페라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통해 태어났고, 오르페오 신화는 오페라 속에서 시대마다 새롭게 살아났다.

글룩의 오페라 개혁

작곡가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룩(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은 바로크와 고전주의의 전환기적 인물이자, 오페라 개혁자로 알려져 있다. 1714년 7월 2일, 독일 바이마르 근처 오펜바흐에서 태어난 그는 독일 출신이지만 대부분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고 빈에서 세상을 떠났다. 초기에는 정가곡이라고도 불리는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seria) 전통을 따르는 작품을 작곡했으나 점차 당시 오페라의 장식적이고 관습적인 구조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 1762년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Orfeo ed Euridice)>를 발표하면서 오페라 개혁을 선언하고 이후 <알체스테(Alceste, 1767)>, <아울리드의 이피게니(Iphigénie en Aulide, 1774)>, <타우리스의 이피게니(Iphigénie en Tauride, 1779)> 등을 통해 개혁적 오페라의 정점을 보여줬다.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글룩이 작곡하고 라니에리 칼차비기(Ranieri da Calzabigi, 1714-1795)의 이탈리아어 대본으로 1762년 10월 5일, 빈 황실 극장에

서 초연됐다. 이 오페라 창작 당시 글룩의 목표는 오페라의 지나친 화려함과 아리아 중심 관습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글룩 이전 시기의 오페라가 어땠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글룩 이전의 오페라에는 아리아 중심의 장식성(특히 이탈리아의 오페라 세리아)과 프랑스 오페라인 서정 비극(tragédie lyrique)의 무용, 합창 통합의 전통이 공존했다. 두 전통 모두 가창을 보여주기 위한 다 카포(Da Capo) 형식(악곡의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연주하라는 지시로, 주로 오페라나 성악곡에서 A-B-A' 형식으로 전개됨)이 우선되어 극적 일체성은 약한, 성악가 중심의 무대가 펼쳐졌다. 극적 통일성보다 가수 전시 무대로서의 오페라가 정착된 것이다. 이런 경향에 대해 보다 풍자적이고 현실적 성격이 강한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희가극)가 부상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페르골레시(Pergolesi) 작곡으로 1733년 초연된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 <마님 된 하녀(La serva padrona)>는 오페라 부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곧이어 프랑스 전통 오페라 대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의 가치를 논하는 ‘부풍논쟁’(Querelle des Bouffons, 1752-54)을 촉발했다. 변화의 배경이 단지 음악적인 요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계몽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의 등장과 시민 사회의 도래를 앞둔 시대정신의 변화, 청중의 취향 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청중들 또한 성악가의 가창 기교만을 나열하는 작품이 아닌 자연스럽고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음악극을 원했다. 계몽주의와 부풍논쟁 등의 문화적 논의가 오페라의 목적을 재설정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글룩은 오페라가 성악가의 과시를 위한 도구가 되어온 기존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했다. 첫 번째 작품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서 그는 ‘음악은 극적 표현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하는 명제 아래 음악이 극적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고, 줄거리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제거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긴 다 카포 아리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레치타티보에 관현악이 수반하게 하여 감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했으며, 성악적 기교는 줄이고 성악가의 연기력과 표현을 강조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역할을 확대하여 극적 색채와 감정의 직접적 전달자로 활용하려 하였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는 오페라 개혁을 향한 글룩의 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오페라 3막의 대표적 아리아 ‘에우리디체 없이 어찌 살리오’(Che farò senza Euridice?)를 보면 아리아를 통해 감정이 섬세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오르페오의 슬픔과 절망은 극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전달된다. 레치타티보 또한 극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하며 감정을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고, 오케스트라는 현악을 중심으로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다. 합창과 발레도 극 중 줄거리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극적 긴장감을 강화하도록 사용하고 있다. 오페라의 개혁을 천명하였음에도 글룩은 원래 비극이었던 원작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바꿨다. 오르페오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다시 사라져 버린 에우리디체는 아모레의 개입으로 남편과 재회해 사랑을 노래하며 끝을 맺는다. 빈 황실극장에서 초연된 이 오페라에서 주인공들이 비극적으로 이별하는 결말은 지배층의 심기를 거스를만한 요소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글룩의 개혁은 당대에 그다지 큰 반향이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글룩이 시도한 오페라 개혁의 영향력은 후대에서 강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오페라를 단순한 성악 기교의 과시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음악과 극의 통합 예술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글룩은 오페라의 본질적 개혁자로 불리며, 모차르트, 베토벤, 베르디, 바그너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글룩 이후 오페라는 모차르트에게서 고전적 균형을, 독일 낭만주의에서는 신화적, 극적 진지함을, 베르디에게서 사실적 감정을, 바그너에게서 총체예술의 이상을 낳았다. 글룩이 말했던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경계 소멸은 바그너에 이르러 완전히 실현됐다.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성악적 기교보다 극적 진실성을 우선시하며 음악과 극의 조화를 시도한 개혁적 모델로 오늘날까지 평가받는다. 바로크 오페라의 장식적 전통을 벗어나 음악과 극을 하나로 통합한 글룩의 혁신은 그리스 비극을 재현하고자 한 르네상스 시대 초기 오페라의 원형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더욱 빛나고 있다.

오르페오의 길 - 사랑과 구원의 서사, 음악이 빚어낸 영원의 언어

연출 엄 숙 정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뱀에게 물려 죽은 아내를 찾아 지하 세계로 간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오르페오가 아름다운 노래로 정령들의 마음을 돌리고 아내를 구하다가 지상으로 나올 때까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영원히 아내와 헤어지게 되는 비극이다.

뜨거운 열정과 소용돌이치는 번민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후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며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를 넘어 릴케의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를 탄생시켰고 작곡가들도 여러 시대를 거치며 앞다퉈 악상을 쏟아 내었다.

악보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로 불리는 페리(J. Peri)의 “에우리디체”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오페라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구현한 몬테베르디(C. Monteverdi)의 “오르페오”, 하이든(F. J. Haydn)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코믹 오페레타로 각색에 성공한 오펜바흐(J. Offenbach)의 “지옥의 오르페”, 그리고 장 콕토의 영화를 오마주한 필립 글래스(P. Glass)의 “오르페”까지 다양한 변주곡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대본과 음악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스테디셀러는 1762년 오스트리아 빈의 초연 이후 여러 개정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대구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올려지는 글룩(C. W. Gluck)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이다.

죽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 남편 오르페오가 지켜야 할 <시선과 말을 아끼고 뒤돌아 보지 말라>는 전제 조건은 그의 숨가쁜 여정 중 가장 백미일 것이다.

순간 청천벽력처럼 아내를 잃고 장례를 치른 오르페오의 심정은 어땠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적 절망 앞에서 그의 혈관 안에 흐르는 뜨거운 피와 심장이 순식간에 방패와 무기가 된 순간 오르페오의 두 발은 이미 신의 영역을 침범하며 무모하지만 용감하게 지하세계로 달려가고 있었을까.

아내의 죽음 이후 거침없이 돌진했던 오르페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에우리디체를 돌아보는 순간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은 깨질 뻔하지만, 그 슬픔과 후회도 그의 일편단심과 진실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신(아모르 Amor)은 이해한다.

신들은 오르페오의 사랑에 감동하며 에우리디체를 다시 살려내고 그 보상으로 아내와의 영원한 결합을 허락하는데 결국 사랑, 신뢰, 시련 구원이라는 클라이맥스를 통해 영원성이라는 주제가 깊이 있게 드러나며 한 인간(오르페오)의 사랑이 시간과 죽음, 신들과의 약속, 인간적 한계를 넘어 지속되는 힘으로 구현되는 드라마의 서사가 매우 흥미롭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여실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절대적 시련과 실패를 무수히 만난다. 그리고 그 앞에서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완전히 빼앗기며 침잠할 때가 적잖게 있다.

하지만 오르페오의 여정을 보고 있던 신들의 감동과 자비처럼 때론 우리를 이끄는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고 구부러진 무릎을 펴게 한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가슴 벅차고 큰 위안이 된다.

무엇보다 내면의 진심이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절실할 때 그리고 전심으로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위대한 기적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 마지막의 합창과 무용, 그리고 아모레의 구원은 “진실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을 완성한다”는 고전적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한다.

극 전체가 단순한 해피엔드가 아니라 사랑과 전심의 “sempre”가 삶과 죽음, 인간과 신, 시련과 축복을 모두 아우르며 새로운 차원의 “영원”으로 승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오르페오의 여정은 죽음마저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의 형상화이며 클라이막스의 재회와 합창은 예술로 승화된 영원성의 궁극적 선언이 된다.

작품을 감상한 후 극장을 나서며 오르페오의 여운이 여러분에게 남기를 소망한다.

그것이야말로 “사랑과 믿음, 음악과 예술의 힘이 인간을 영원으로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메시지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헌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대 그리스 신화와 250여년 전 글룩의 음악으로 만나 고귀한 영원의 가치를 품은 이 작품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위로의 선물이 되길 바라며 인간의 감정과 예술적 메시지는 시간을 넘어 불멸하다는 믿음이 함께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1막

오르페오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 에우리디체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슬픔에 잠기고, 목동들은 무덤가에 모여 그녀를 애도하고 있다. 아내를 데려간 신들을 원망하던 오르페오는 그녀를 되살려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울부짖는다. 그때 사랑의 신 아모레가 나타나 오르페오의 슬픔과 비탄이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의 동정을 받았다며 지하세계로 내려가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상으로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 절대로 아내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녀와 헤어지게 된다고 덧붙인다. 오르페오는 두려움을 떨치고 아내를 되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2막

마침내 지옥의 문 부근에 다다른 오르페오의 앞에 복수의 여신과 괴물들이 나타나 그를 찢어버리겠다며 위협한다. 오르페오는 리라를 연주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복수의 여신은 그의 연주에 감동받은 나머지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준다. 이윽고 오르페오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상주하는 낙원에 도착한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에서 에우리디체를 잊지 않은 오르페오는 영혼들에게 그녀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고, 에우리디체가 나타나자 그녀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지상으로 향한다.

3막

오르페오에게 이끌려 지상으로 향하던 에우리디체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깨닫고 기뻐한다. 하지만 오르페오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에우리디체는 그를 협박하고 애원한다. 아모레와의 약속으로 아내를 바라볼 수 없을뿐더러,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오르페오는 답답한 마음에 에우리디체를 재촉한다. 그러나 이미 오르페오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한 에우리디체는 차라리 지옥에 남겠다며 그의 손을 뿌리친다. 그녀가 갑작스러운 공포와 죽음의 위협에 주저앉자 오르페오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에우리디체는 다시 한 번 지하세계로 끌려들어가고 만다. 오르페오가 깊은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아모레가 다시 나타난다. 아모레는 오르페오의 헌신과 고통을 인정해 에우리디체를 다시 살려주고, 셋은 사랑의 힘을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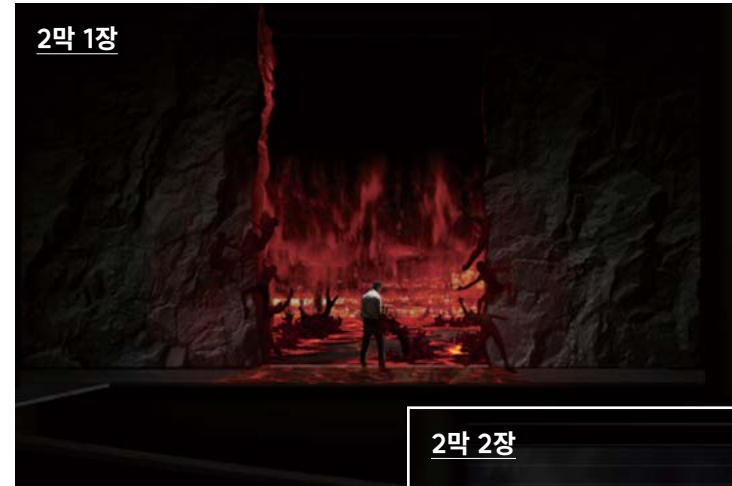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무대디자이너 김 현 정

거대한 바위 앞에 에우리디체의 장례식이 시작되고 객석에서부터 연결된 배우들의 움직임을 통해 관객을 무대로 몰입하게 하며 죽음으로 가로막힌 그들의 사랑을 거대하게 막은 기암절벽으로 표현했다.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육중한 바위가 갈라지며 오르페오가 만나는 첫번째는 지옥이다. 절벽의 좁은 문을 통해 마치 옛보는 효과를 만들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열기와 광기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천국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통해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준다. 물, 즉 무대에서 표현된 강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죽음과 삶을 이어주는 도구이자 장소이다. 여기에서 마침내 두사람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해서 생명을 가지고 피어난다.





오르페오



에우리디체(1막)



에우리디체(2막)



아모레



무용(1막 장례식)



무용(2막 지옥)



무용(2막 천국)



무용 2막 천국



무용 2막 천국



무용(지옥으로 가는길)



무용(3막)



합창(1막)



합창(2막 천국)



합창(3막)

예술감독 정 갑 군**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 연출과 졸업,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연출 수업
- 최초 국악오페라 <직지> 연출, 독일 칼스루에극장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터키 아스펜도스 오페라 & 발레페스티벌 <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동양인 연출가 최초로 2년 연속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 오페라 <라 보엠>, <오텔로>, <운명의 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리골레토>, 윤이상 <심청> 등 150여 편 연출
-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역임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지휘 조정 현****Conductor** Cho Junghyun

- 서울대학교 지휘과, 신시내티 음악대학원 지휘과 석사 및 오페라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제6회 블루다뉴브/벨라바르톡 국제지휘콩쿠르 우승
- 2025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지휘
-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아콰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 로체스터필하모닉,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신시내티오페라, 루세오페라, 팀프양상블 등 지휘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돈 조반니>, <세비야의 이발사>,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토스카>, <잔니 스키키>, <투란도트>,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등 50여 편 지휘
- 신시내티 음악대학 겸임교수 역임
- 현) 한국국제예술학교 이사장 및 음악감독,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연출 엄 숙 정****Director** Eom Sookjeong

- 이탈리아 아퀼라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프로시노네 리치니오 레피체 국립음악원 오페라 연출과 수석 졸업
- 이탈리아 발무치아 시립극장,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예술의전당,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인천, 대구오페라하우스, 부산문화회관, 부산콘서트홀 등 국내외에서 연출
-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라 보엠>, <토스카>, <잔니 스키키>,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피델리오>, <파우스트> 등 다수 연출
- 현) 이화여대, 경희대,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출강하며 전문 연출가로 활동 중

**안무 김 영 남****Choreograph** Kim Youngnam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공연학 석사 졸업
- 대구시립무용단 단원 역임
- 제25회 대구무용제 대상 및 안무상 수상, 제17회 뉴댄스페스티벌 올해의 안무가상 수상, 2019 대구예술상 수상, 2021 대구광역시장 표창, 제35회 자랑스런 구민상(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상
- 오페라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오텔로>, <춘향>,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안드레아 세니에> 외 다수 무용, 음악, 연극, 뮤지컬 안무
-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독일 보쿰시립극장, 멕시코 킬로로페즈국제현대무용축제, 일본 사이국제무용제, 태국 뮤직 챔피언십, 호치민-대구 도시간 무용교류공연,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초청공연
- 현)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단체 카이로스 대표, 문화공간카이로스 대표



오르페오 M. Sop. 김 정 미**Orfeo M. Sop. Kim Jungmi**

- 키지아나 아카데미 디플롬 취득,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
- 제네바 국제콩쿠르 2위, 알카모 국제콩쿠르 1위, 라우리볼피 국제콩쿠르 특별상, 비냐스, 툴루즈 등 다수 국제콩쿠르 입상
-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원시향, 서울시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등지에서 다수 작품 출연,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스 메츠 아스날 대공연장에서 메츠 국립오케스트라와 협연
- Fete de la Musique Festival(스위스), "Open Door. Teatri A teatro 2010(이탈리아)" 주최 오페라 <일 캄피엘로>, <잔니 스키키>를 비롯 <코지 판 투테>, <세비아의 이발사>, <카르멘>, 국립오페라단 <호프만의 이야기>, <삼손과 데릴라> 주역
- '바자'역 메조의 역할 개척으로 <피가로의 결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로미오와 줄리엣> 등 다수 오페라 출연, 관객과 언론의 주목을 받음
- 현) 솔리스트로 활동 중

**에우리디체 Sop. 오 희 진****Euridice Sop. Oh Heejin**

-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파르마 아리고 보이토 국립음악원 졸업
- ADADS아카데미아 오페라 전문과정 수료
- 마르티니 국제콩쿨 1위, 티타 디 루포 국제콩쿨 1위, 피에트로 문지니 국제콩쿨 1위, 피에로 카푸칠리 국제콩쿨 2위, 자코모 푸치니 국제콩쿨 2위 등 다수 국제콩쿨 입상
-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여자 신인상 수상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오페라 <투란도트>, <안드레아 세니에>, <토스카>, <맥베스>, <나비부인>, <돈 조반니>,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나부코>, <오텔로>, <라 보엠> 외 다수 주역 출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중앙대학교, 가천대학교 실기강사 역임
- 현) 계명대학교 출강 중

**아모레 Sop. 이 정 현****Amore Sop. Lee Junghyun**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성악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블루밍턴 제이콥 음악대학 성악과 전문연주자 과정 장학생 입학 및 졸업(PD)
-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교 연주학 박사 전면장학생 입학 및 졸업(DMA)
- 부산 글로벌 국제콩쿠르 1위, 미국 알텍 국제콩쿠르 2위
- 미국 켄터키오페라단원, 미국 센터대학, 버레아 대학 외래교수 역임
- 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운수 좋은 날>,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심청>, <카르멘> 등 다수 오페라 출연
-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포항예고 출강, 국내외 전문연주자 및 주역가수로 활동 중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악보담당 이상원 홍보담당 김윤주

Violin I 박은지 장세희 장지은 김현비 이은영 장혜진 이지애 | Violin II 박민서 장유진 양수빈 이소희 정수현 류가현
Viola 김효원 조민지 박선영 김예송 조재형 | Cello 박소현 최재영 설예은 김형기 박소희 | Contra bass 김지정 서한나
Flute 김민주 백선미 | Oboe 배민주 강지수 | Clarinet 김민수 전다양 | Bassoon 조혜연 조윤주 | Horn 양삼영 김태우
Trumpet 이해연 전성화 | Trombone 김진욱 이민정 김민욱 | Timpani 허동훈 | Harp 이은하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환 단무장 배은경 반주자 류지원 임윤지

소프라노 문은초 김채이 박주는 서아영 신유경 이나은 이다영 이서연 전영민 정경진 정원정 | 알토 권민선 권찬미 김서현
김채윤 박수정 박지원 이진아 정주현 한혜원 손선애 최선주 | 테너 민경휘 박재민 서영덕 이승현 전지훈 | 베이스 김대인
김준년 문형우 박중섭 이종하 주성은 김주호



카이로스 댄스컴퍼니 Kairos Dance Company

안무 김영남

김동윤 김채린 류정인 김나영 전소영 권윤형 김범수 등명량 김병규 이형신 박재진 박선우



무대디자인 김현정**Scenic Design** Kim Hyunjung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가구디자인) 졸업, 이탈리아 브레라국립미술원 졸업
- 국립오페라단 미술감독 역임,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전임대우 교수 역임
- 오페라 <아랑>, <지귀>,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송년 오페라 갈라 <지크프리트의 검>, <세비야의 이발사>, <투란도트>, <마술피리>, <아이다>, <오텔로>, <토스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창작오페라 <박쥐>, <허왕후>, <양철지붕>, 연극 '오리사냥', '연애회곡', '콜렉션', '십이야', '아일랜드', '화금석', 국립창극단 '적벽' 등 무대디자인 및 신년음악회, 터키만찬 전시회 등 참여

**의상디자인 이재희****Costume Design** Lee Jaehee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센트럴 세인트 마틴 MA Scenography, 라반센터 MA Scenography for Dance 졸업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오텔로>, <돈 카를로>, <메피스토펠레>, <파우스트>, <어린이와 마법>,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롤루>, <리골레토> 등 작품 의상감독 역임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가면무도회>, <돈 조반니> 무악오페라단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 <카르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토스카>, <심청>, 고양문화재단 오페라 <마술피리>, 춘천문화재단 오페라 <봄봄봄>, 국립창극단 <적벽가> 등 의상디자인

**조명디자인 문길환****Lighting Design** Moon Gilhwan

-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독일 K15페스티벌,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극장, 일본 히로시마 아스텔프라자극장, 일본 요코하마 덴스컬렉션 R, 헝가리 에르켈 극장,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극장 등 국내외 주요 극장 및 국제 페스티벌 조명디자인
-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라 보엠>,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박쥐>,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일 트리티코>,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리골레토>, <돈 카를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투란도트>, <살로메>, <장미의 기사>, <오텔로>, <아이다>, <안드레아 세니에>, <일 트로바토레> 등
- 연극 '반야아저씨', '유리동물원'
- 무용 '햄릿 에피소드', '코리아 더블빌', 'ICE & WATER' 등

**분장디자인 이정수****Make-up Design** Lee Jungsoo

- 한성대학원 패션예술학과 분장예술학 석사 및 미국 Make-up Designory special Make-up, 한국색채학회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
-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공연연기와 무대분장 강사 역임
-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보리스 고두노프>, <리골레토>, <라 보엠>, <카르멘>, <마술피리>, <팔리아치>, <돈 조반니>, <춘향전>, <잔니 스키키>, <아이다>,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안나 볼레나>, <동백꽃 아가씨>, <호프만 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등 분장디자인
- 현) Main Make-up 대표



영상디자인 장 수 호**Video Design Jang Sooho**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예술공학 박사수료, 중앙대학교 Digital Arts & Technology Application 연구원
- 송의여자대학교 영상제작과 겸임교수 및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학과 강사 역임
- 2020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선정작가
- 오페라 <아이다>,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라 보엠>, <돈 조반니>, <안드레아 세니에>, <피가로의 결혼>, <운명의 힘>, <레드슈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봄봄 동승>, <한국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 등 다수의 오페라 영상디자인
- 현) 라이브랩 CMO

**오페라코치 / 챔발로 정 지 은****Opera Coach / Chambalo Jung Jieun**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페라 코치과정 만점 졸업, 라 스칼라 아카데미 오페라코치 과정 디플로마, 리카르도 무티 오페라 아카데미 오페라코치 과정(장학생 선발) 디플로마
- 제12회 오토리노 레스피기 국제콩쿠르 1위(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
- 라 스칼라 극장 반주자 및 어시스턴트, 국립오페라단 <세비야의 이발사>,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음악코치 역임 및 국내외 다수의 마스터클래스, 독창회, 독주회 반주
- 국립오페라단 스튜디오 오페라코치 역임,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오페라코치 역임
- 현) 오페라코치로 활동 중

**반주 제갈희진****Accompanist Jegal Heejin**

- 대구가톨릭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과, 피아노과 석사 졸업
- 오페라 <라 보엠>, <토스카>,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카르멘> 등 음악코치 및 반주
- 대구오페라하우스 <헨젤과 그레텔>, <투란도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피가로의 결혼>, <264, 그 한 개의 별> 등 다수 프로덕션 반주
-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출강,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조연출 장소희****Assistant Director Jang Sohee**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창작뮤지컬 '토돌이의 모험', '어린왕자' 등 다수 뮤지컬 조연출
-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 <아이다>, <돈 카를로>, <사랑의 묘약>, <로엔그린>, <가면무도회>, <라 보엠>, <모세>, <살로메> 등 다수 작품 조연출
- 현) 국내·외 프로덕션에서 전문 조연출로 활동 중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조정현
연출	엄숙정
안무	김영남
무대디자인	김현정
의상디자인	이재희
조명디자인	문길환
영상디자인	장수호
분장디자인	이정수
프로덕션 PD	이하나 한규리 김현주
무대감독	정진섭
음향감독	차광석
조명프로그래머	조현우
오페라코치/챔발로	정지은
반주	제갈희진
조연출	장소희
조연출보	이아영
소품수	조민영
자막·영상오퍼레이터	허성훈
무대크루	조피아 김태현 이정민 이부연 김서울 김승규 이동원 심건수 김우림 구민우
조명크루	배수영 이승준 남희원 손정현
의상크루	팀장 도갑경 최지원 김나현 이지예
분장팀	임상아 정다운 정선희 오은교 김선영 송다빈 이채은
촬영팀	프로덕션 위로
사진촬영	용스튜디오
무대제작소	온스테이지
의상제작소	씨앤엘(CNL)
소품제작소	스타이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득주
무대시설부장	강영구
공연기획팀	팀장 최은정 이하나 박선영 최서운 한규리 김현주
국제교류팀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새별 강지윤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최보윤
무대예술팀	팀장 박병달 문길환 차광석 정진섭 김태하 이남문 최진영 김남오 박준환 조원호 조현우 최지희
시설관리팀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10기 오페라팬	게라시멘코 안젤리나 문보미 배민욱 배순옥 오 늘 윤정민 이수진 이채현 장성민 추승민
18기 오페라필	구다은 권지민 김규리 김나은 김채영 남다정 류성은 박보영 박선영 박소은 서보훈 소효진 신영빈 여도영 유영실 이민서 이유리 이지안 임영재 장수연 장지웅 전경애 정수현 조재영 조채민 최경진 최은빈 하윤수 황병태 황예진



